

제주형 재정사업 자율평가 (J-PART)로 재정 건전성 제고



강기춘

제주대학교, 경제학과 교수
kanggc@jejunu.ac.kr

1980년대 이후 영미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정부 운영 및 개혁에 관한 신공공관리(New Public Management) 이론이 등장하였다. 이 이론은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'시장주의'와 '신관리주의(New Managerialism)'를 결합하였으며, 주요 정책 수단으로는 인력 감축, 민영화, 재정지출 억제, 책임운영기관, 규제 완화 등을 들 수 있다.

정부 재정사업의 효과성과 예산배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도입된 재정성과 관리제도의 이론적 배경은 신공공관리 이론이라 할 수 있다. 최근 재정운용의 초점이 투입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, 국가재정운용계획제도, 디지털 예산회계제도, 재정성과 관리제도 등 4대 재정개혁을 시행하고 있다.

그 중에서 재정성과 관리제도는 재정성과 목표관리, 재정사업 자율평가, 재정사업 심층평가 등 3개의 제도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추진되고 있다. 재정성과 목표관리는 1999~2002년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2003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,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2005년에 도입되었다. 또한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2006년에 도입되어 성과관리를 위한 수단이 모두 갖추어지게 되었다.

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출발은 미국의 PART를 들 수 있는데 PART는 2002년부터 미국 대통령실에 소속된 관리예산처(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; OMB)가 사업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인 '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'을 줄인 말이다. PART의 목적은 사업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인데,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PART는 사업성과를 측정·진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. 사업을 체계적이며 일관되게 그리고 투명하게 평가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.

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2005년부터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시행해 오고 있다. 재정사업의 성과를 검토하는 이 제도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시키기 위하여 사업수행부처가 재정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 자율적으로 평가하고, 부처의

자율
산편
재
대상
투입
하고
평가
매년
의 평
중
지방
는 사
처음
평가
사업
업 18
요 국
하여
원)에
추진 방
제주
출범하
정의 위
위한 민
에서 제
과제 중
제의 세
텔 구축
은 성과
평가 시

이를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진단 시
2009년 이후로 추진된 주요사업 중 분야별 대
표성을 고려한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평가를 시
범적으로 실시하였다. 10개 사업 모두 상당히 양호
한 평가를 받아 사업의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을 얻
었으나, 시급성 및 추진방법에서는 사업별로 차이를

국회
세부
확보과
재정모
과제의 주요 내용
작성과 재정사업 자율

세부
책무
가자에게
셋째, 평가
마련하고 있다.
넷째, 평가결과에
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
다섯째, 평가결과가 각 사업
환류되는 시스템을 고안하고 있다.